

폴리텍대학, 역대 최대 규모 '교수 120명' 초빙

- 정부의 전략산업부터 전통산업 고도화까지 19개 계열 대규모 채용
- "기술을 넘어 사람을 키운다"… 교양 분야 교원 역대 최대 규모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교수 채용에 나선다. 이번 채용을 통해 19개 계열 교수 120명을 초빙한다.

* 계열별 인원(명): 기계(8), 기계설계(3), 금형(1), 자동화(8), 산업설비(9), 자동차(6), 신소재(1), 전기(22), 전자(2), 정보통신IT(7), 디자인(3), 미디어(2), 섬유패션(1), 바이오(3), 반도체(10), 로봇(2), 항공(2), 교양(26), 개별특성화(4)

이번 채용에서는 신산업과 전통산업을 아우르는 다양한 산업군의 교원 수급이 이루어진다. 특히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발맞춰 반도체, AI, 전기 등 첨단 전략산업 중심의 교원을 적극 확충하고, AI·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에 따른 전통산업 고도화를 이끌 인재도 함께 선발한다.

기술교육과 함께 교양교육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미래 일자리 보고서 2025(Future of Jobs Report 2025)』에서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으로 꼽은 창의적 사고, 회복탄력성, 유연성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기술을 넘어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창업·진로 설계, 심리상담 등 다양한 교양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기술 역량은 물론 변화에 적응하고 성장하는 힘까지 함께 키워나갈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3년 이상의 현장 실무 경력을 갖춘 자다. 특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술지도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산업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기술 전문가들의 지원을 장려하고 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AI 시대 직업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사람 중심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이번 교수 초빙은 기술과 교양, 직업과 삶을 잇는 미래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키우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서 접수는 8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임용 예정일은 12월 말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일정은 한국폴리텍대학 누리집(kopo.ac.kr) 및 채용 전용 누리집(recruit.incruit.com/kop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홍보부	책임자	부 장	최진경 (032-650-6740)
		담당자	대 리	김재민 (032-650-6742)
담당 부서	운영국 인사부	책임자	부 장	조형준 (032-650-6730)
		담당자	교 수	박근영 (032-650-6733)

